

상용차 인력 양성 '맞손' 잡다

전북인자위-타타대우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근로자 역량 강화 협약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전북인자위')는 9일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에서 타타대우 상용차,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과 상용차 산업 근로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상용차 산업 인력양성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과 협력업체 훈련 참여 등 급변하는 상용차, 자동차 산업에 맞춘 기술 향상 맞춤형 교육훈련을 위한 업무 협력을 추진했다.

이 협약과 관련된 직업훈련은 전국 9개 지역인자위가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직업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사업'으로 도내 고용위기 업종인 자동차부품업 조산업에 종사 중이거나 1년 이내 재직했던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이전직에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해당 과정은 전북인자위,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에서 타타대우상용차 제작자 대상 필요 훈련 수요를 발굴해 최종 승인된 '전기자동차(EV) 시스템 기반 제조기술 교육과정'으로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9일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에서 타타대우상용차,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과 상용차 산업 근로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15일부터 12월까지 30여 명의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실무형 교육이 진행된다.

아울러 전북인자위와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은 향후 자동차산업은 물론 조선해양기자재, 건설기계, 신재생에너지 등 지역 내 주력산업을 대상으로 산업전환 및 기술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은 도내 자동차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수소차 산업으로

변환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직업훈련을 통한 신기술 습득과 재직자 직무역량 강화로 고용유지와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적응하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이 추진됨에 따라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의 산업현이 참여해 적시에 공급된 직업훈련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인자위 운영실 공동위원장장은 "전북인자위가 도내 고

용위기업종의 훈련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지역 주력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의 인력양성, 기업지원 사업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추진 중인 기관과 함께 직업훈련을 통해 신기술 산업 분야에 대응하고 지역 성장을 견인할 우수사례로서 향후 전북의 많은 기업과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현장의 의견을 정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상용차 자율주행 기술협력 힘 합치다

LX공간정보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지능형교통체계협회 기술협력 협약 체결

LX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은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사)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와 함께 9일 LX공간정보연구원에서 '상용차 자율주행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손준영 LX공간정보연구원장, 이상수 자동차융합기술원장, 김창연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부회장이 참석해 자율주행 상용차(화물차)의 군집 주행 운영환경 조성, 상용차 부품 개발·제작사 표준 규격 적용 및 평가기관 마련 등에 기관 간 역량을 한 데 모으기로 했다.

앞으로 진행될 기관 간 실증 정보 교류는 향후 우리나라 화물차 군집주행 시나리오·표준 구축 및 상용차 산업 기반 활성화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주목된다.

LX공간정보연구원은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자율주행 공간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해 노력해왔다. 자율주행 데이터 획득 다중용량센서의 지난 2018년 국내 최초 도입을 시작으로,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동적지도 구축 및 데이터 표준 적용 기술을 추가했다. 또 2020년에는 지능형 자동차 인식기술 공개용 표준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했으며, 현재는 한국형 도로환경에 맞는 인공지능(AI) 데이터 구축을 위해 도심형(경기 판교)과 비도심형(전북 새만금)으로 나누어 동적지도 및 고정밀 디지털지도 활용을 실증하고 있는 단계이다.

손준영 LX공간정보연구원장은 "고정밀 공간정보는 자율주행차가 가지고 있는 주요 센서의 고장, 기상악화 등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LX연구원이 보유한 동적지도(LDM)의 연구·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상용차 자율주행 군집주행을 위한 동적정보 서비스 제공과, 더 나아가 상용차 자율주행 산업 확산 및 지역 발전에 공헌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기후변화 대응, 농업 생산 시스템 구축 필요'

오늘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 포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 이하 농기평)이 주관하는 '제26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이하 미래성장포럼)'이 1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미래성장포럼'은 농림식품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이슈를 주제로 토론하고 미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지난 2014년부터 26회째 이어져 오고 있다.

그동안 미래성장포럼에서는 친환경 농업·바이오산업·스마트농업·군중산업·데이터 농업 등 여러 주제를 다루었고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해 전 세계 과학기술 동향과 한방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포럼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하고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한다.

발표는 서울대 김용환 교수, 영남대 이상호 교수, 건국대 이흥구 교수, 서울대 김창집 교수가 하고 농업 및 축산업 부문에서 기후위기에 따른 영향과 대응 전략을 짚어냈다.

주제발표 후에는 김중석 전 기상청장을 좌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고, 온라인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한 답변 시간도 가졌다.

올봄 5번째 지구의 날을 기념해 개최되었던 세계기후정상회의를 계기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이행은 글로벌 핵심 의제로 자리매김한다.

농식품부도 이에 발맞춰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정책 총괄부처로서 농업

분야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준비하는 등 저탄소 농업 실현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농식품부 김영수 과학기술정책과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 생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미래성장포럼을 통해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농업 분야 기술개발 및 연구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림식품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으로 생중계로 진행하고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농기평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iper2018)와 유튜브 채널, 2021 농식품과학기술대전 홈페이지(www.agritechexpo.kr)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김윤성 기자

중기 78.5%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필요"

납품대가 반영 미흡 승강기·레이콘 업종에서 "필요" 의견이 각각 100%·83.3%로 나타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지난 7월 원자재 가격 상승폭이 컸던 9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종별 납품대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회원이 647개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96.9%의 중소기업은 지난 2020년 말 대비 올해 공급원가가 상승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상승률은 26.4%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원가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조합원사의 45.8%는 납품대금이 비용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반영은 47.9% 전부 반영 한 기업은 6.2%에 그쳤다.

일부 반영한 경우 공급원가 상승분 대비 납품대금 반영 수준은 평균 31.4%로 지난해 가운데 납품대금에 비용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주된 이유로는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단가 인상 요청 어려움(54.7%)과 거래단절 등 불이익 우려(22.8%)를 꼽았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관련 위탁기업(원사업자)과 거래관계에 있는 승강기, 레이콘, 가구 업종에서 납품대금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82.6%, 59.9%, 50.0%로 높게 나타나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경영 애로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가에 연동하는 '납품대가 연동제' 도입에 대한 의견으로는 '필요하다'(78.5%), '보통이다'(17.2%), '불필요하다'(3.9%)로 조사됐으며, 납품대가 반영이 미흡하다고 응답한 '승강기', '레이콘' 업종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100.0%와 83.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양찬희 혁신성장본부장은 "공급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납품대금 인상에 비협조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점 실태조사 업종으로 선별해 강력한 현장조사와 시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납품대가 연동제 도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고 공정위가 계획중인 납품대금 조정실태 점검 추진 과정에서 납품대가 인상에 애로를

겪는 업종을 중점 관리조사 업종으로 선정해 면밀한 점검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영태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내달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드론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오는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관내 시·군)은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이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보호지원단으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사전처리 할 계획이다.

이명규 무주국유림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라며 "위법행위 단속 시 산림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산림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포장된 과일을 냉장고 안에 보관하는 모습.

명절 과일 더 신선하게 보관하려면?

첫번째 핵심 '온도 꼭 확인'

사과, 배·포도와 분리... 남은 과일, 종이행주 감싸서 포장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추석 선물로 받은 과일이나 제수용 과일을 더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9일 소개했다.

과일 보관의 첫 번째 핵심은 '보관 온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사과와 배, 포도, 단감, 키위 등 대부분의 과일은 온도 0도(C), 상대습도 90~95%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저온에 민감한 복숭아의 경우, 천도와 황도계 복숭아는 5~8도(C), 속이 하얀 백도계 복숭아는 8~10도(C)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야 품질이 살아있고 과즙이 풍부한 복숭아를 즐길 수 있다. 일반 가정에서는 저온에 강한 치밀냉장고가 있다면 김치냉장고(0~15도(C))에 넣고 복숭아는 일반 냉장고 냉장실(4~5도(C))에 보관한다.

과일 보관의 두 번째 핵심은 '에틸렌 반응성과 민감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에틸렌은 과일을 저장할 때 나오는 '식물노화호르몬'으로 작물의 노화와 부패를 촉진한다. 따라서 에틸렌을 많이 생성하는 사과, 멜론, 복숭아 등은 에틸렌에 민감한

배, 포도, 단감, 키위, 일채소 등과 함께 저장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사과는 대표적으로 에틸렌을 많이 생성하는 과일이다. 최근 사과·배를 선물용으로 한 상자에 혼합 포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호르몬에 의해 배 품질이 빠르게 변하므로 상자째 두지 말고 반드시 분리해 보자. 천도와 황도계 복숭아는 키위, 아보카도 등 후숙(익히기)이 필요한 과일을 빨리 먹고 싶을 때는 사과를 곁에 두는 것이 빠른 후숙 처리에 도움이 된다.

남은 과일을 포장할 때는 종이행주(키친타월) 한 장으로 감싸준 후 무명 비닐봉지나 랩을 이용해 한번 더 감싸준다. 흡습제는 지나친 습도로 인해 생기는 부패 현상을 막아주고, 무명 비닐봉지와 랩은 수분 손실을 억제해 과일의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홍윤표 과장은 "가정에 있는 '식물노화호르몬'으로 작물의 노화와 부패를 촉진한다. 따라서 에틸렌을 많이 생성하는 사과, 멜론, 복숭아 등은 에틸렌에 민감한

/김윤성 기자

사회적기업 마케팅 최대 600만원 지원

경진원, 크리에이터 활용 참여 기업 24일까지 추가 모집

전북도와 전북경제특성산업진흥(원장 이현용, 이하 경진원)은 오는 24일까지 '크리에이터 활용 마케팅 및 판로 개척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온라인 판로 발굴이나 가

을·겨울철 시즌 프로모션이 필요한 국내 예비·인증 사회적기업을 7개 업체 이내로 모집할 계획이다.

크리에이터 활용 마케팅 및 판로 개척 지원사업은 온라인 홍보·프로모션을 지원해 도내 사회적기업이 코로나 19 발생, 언택트 시장 급성장 등과 같은 대외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비대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해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으며, 전북 사회적기업의 우수제품과 사회적가치 전파를 목표로 크라우드 펀딩 기획전 및 SNS홍보를 실시해 1억 원이 넘는 매출과 137만 회 이상 조회수를 달성했다.

올해에는 도내 사회적기업 여건을 고려하고 기업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원 분야를 확대하는 등 사업내용을 개설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문화·체육 분야 기업을 위한 온라인 클래스 강사개설도 지원범위에 추가했다. 또 사회적기업 간 협업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 클라보 상품 개발도 신규 지원한다.

올해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온라인 프로모션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최대 6

백만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으며 대규모 팔로워를 보유한 유튜브 등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올 상반기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더울림'은 홍보도 지원을 신청하게 마실 수 있는 약도라지 생화차제품을 개발해 워디스 펀딩을 통한 시장테스트 결과 호평을 얻고 제품 및 마케팅 전략 완성도 제고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현재 네이버 해피빈에서 가을맞이 치즈떡·모시송편 펀딩을 진행 중인 '메밀꽃피는향이'는 펀딩 오픈 하루 만에 목표금액을 달성했으며 현재 1.300% 이상의 달성률을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

경진원 이현용 원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셜미션 실현을 통해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 희망기업을 오는 24일까지 경진원에 신청서류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진원 홈페이지(www.jta.kr)를 참조하거나, 경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063-711-2111)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태 기자